

서울특별시 전통문화시설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 돈화문 국악예술당)

Traditional culture Center in Seoul (Digital Museum for a court life,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Center, DonHwamun)

당선작_김용미 ^{정회원}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동동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908.20㎡
건축면적	234.85㎡
연면적	1,621.23㎡
구조	지상 : 한식목구조, 지하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1층
외부마감	전통한식기와, 회벽, 로이복층유리

돈화문 국악예술당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동동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958.60㎡
건축면적	226.71㎡
연면적	1,710.85㎡
건폐율	56.21%
구조	지상 : 한식목구조, 지하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3층, 지상 1층
외부마감	전통한식기와, 회벽, 로이복층유리, 전벽돌

발주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담당 이승연, 김석진, 송은정, 임형호, 공혜라, 문태모, 이정섭

돈화문 앞 광장 하나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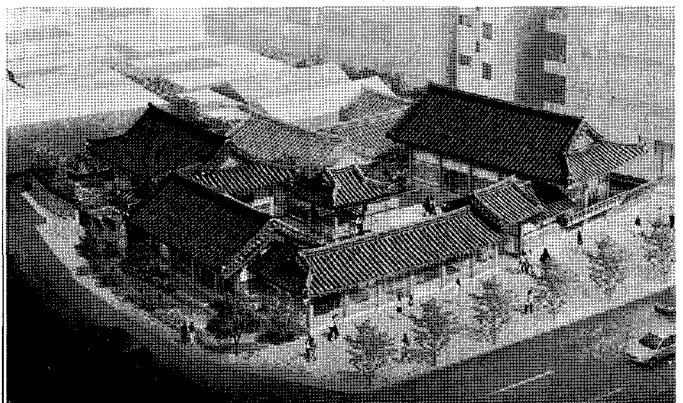
전통문화시설이 들어설 자리는 전면으로 돈화문을 바라보고 있고 북향으로 앉은 대지이다. 이곳은 예부터 돈화문을 중심으로 한옥과 물길로 둘러싸인 광장이었고 이를 되살릴 필요가 있었다. 돈화문과 디지털 전시관, 국악예술당 셋을 한옥가로로 둘러싸 통일감을 부여하는데서 설계를 시작하였다.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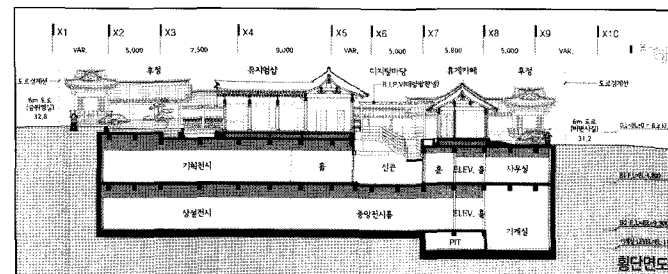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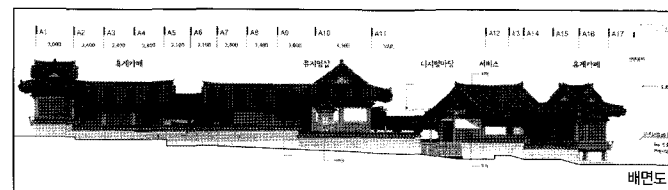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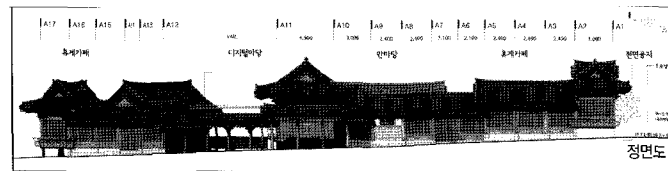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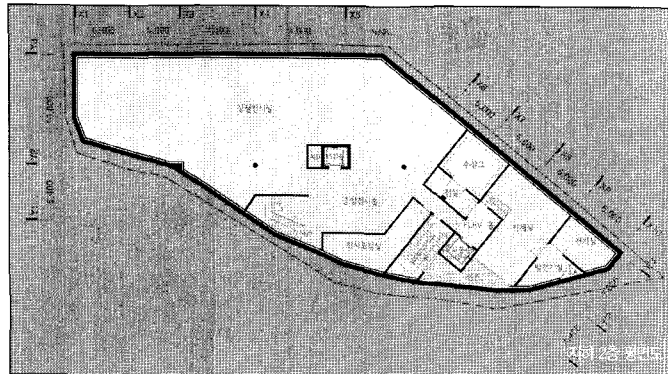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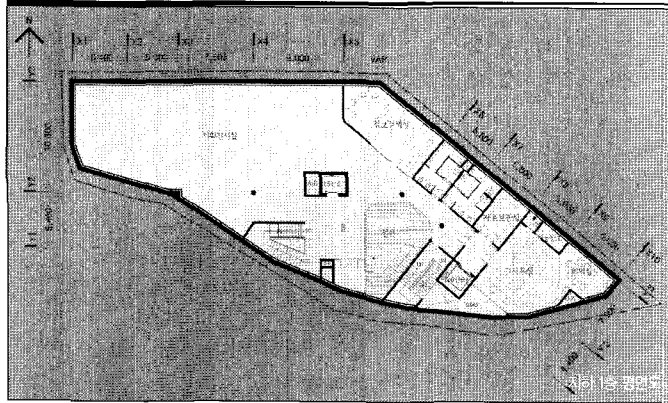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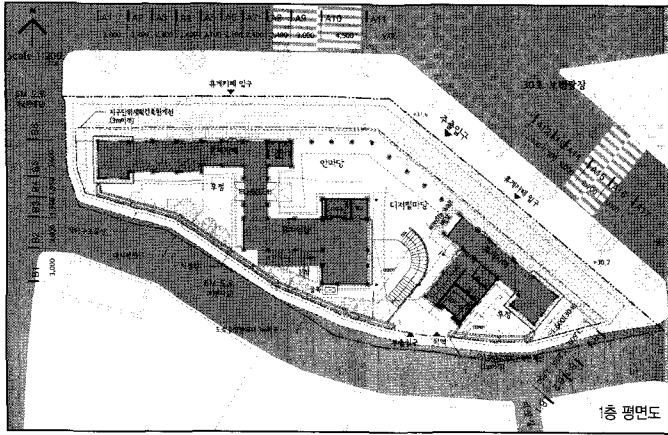
- 지붕의 높낮이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표현
 이 부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전시관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전면의 한옥을 회랑으로 처리하였고 마당의 선근을 통해 바로 지하전시관으로 연결시켰다. 2.1m의 대지내 고저차를 이용하여 경사진 가로를 따라 회랑에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회랑 너머 보이는 본체의 자붕 중첩미를 표현하고, 회랑의 양쪽 끝을 십자각으로 마무리하였다. 지상에서도 디지털전시관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한옥지붕사이에 Digital roof를 설치하였다. 하부는 디지털 모듈을 이용하여 디지털 분위기를 만들고 상부는 태양광 패널(BIPV)을 설치하였다. 대지남쪽으로는 선근을 뚫어 지하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였고, 대지레벨이 높은 쪽에 전시실을 두어 필요한 높이를 확보하였다.

<돈화문 국악예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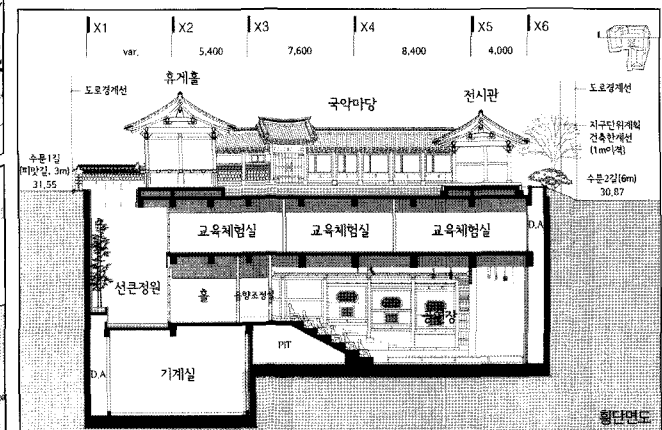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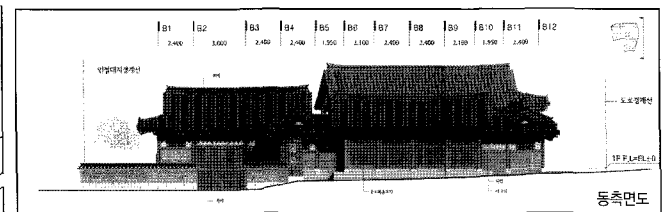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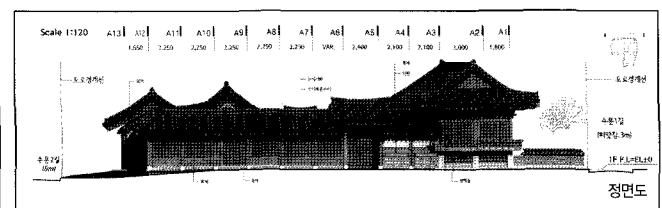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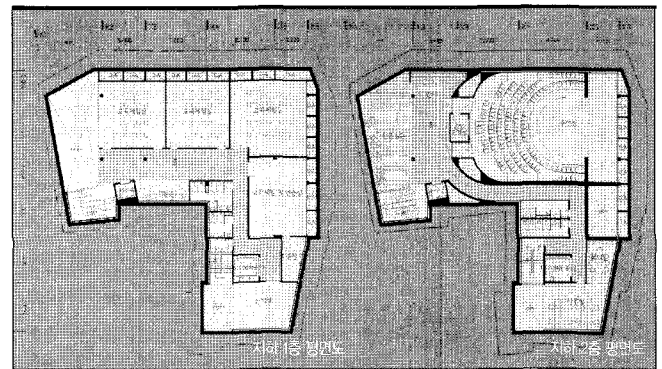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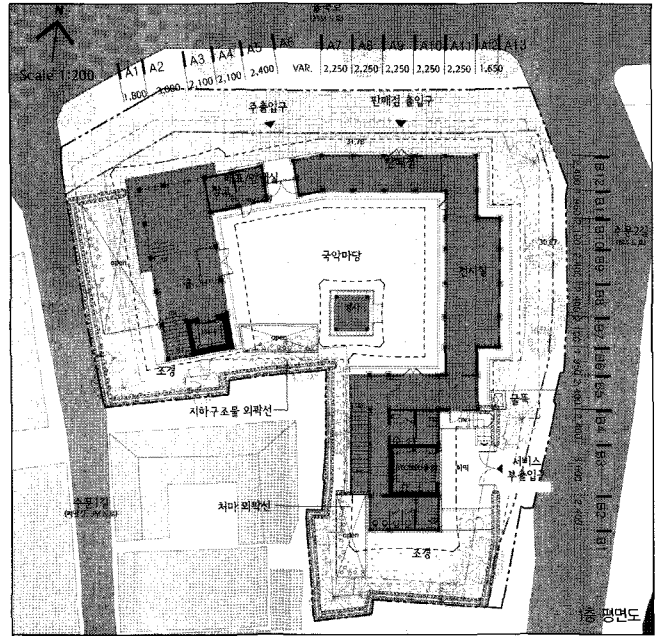
- 도심 속 여백만들기
 돈화문으로 열린 누마루형식의 휴게홀은 사람들을 국악예술당으로 초대한다. 남쪽으로 열린 국악마당은 사람들의 쉼터이자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지하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지하공연장의 홀과 사무실은 선근정원으로 충분한 빛과 자연환기가 되도록 하였다. 공연장은 국악전용극장으로 개방형 무대이고 적정가시선을 확보하기 위한 무대경사도로 계획하였다. 하부플래너를 두어 효율적인 구조계획과 공연장의 안정적인 음환경을 확보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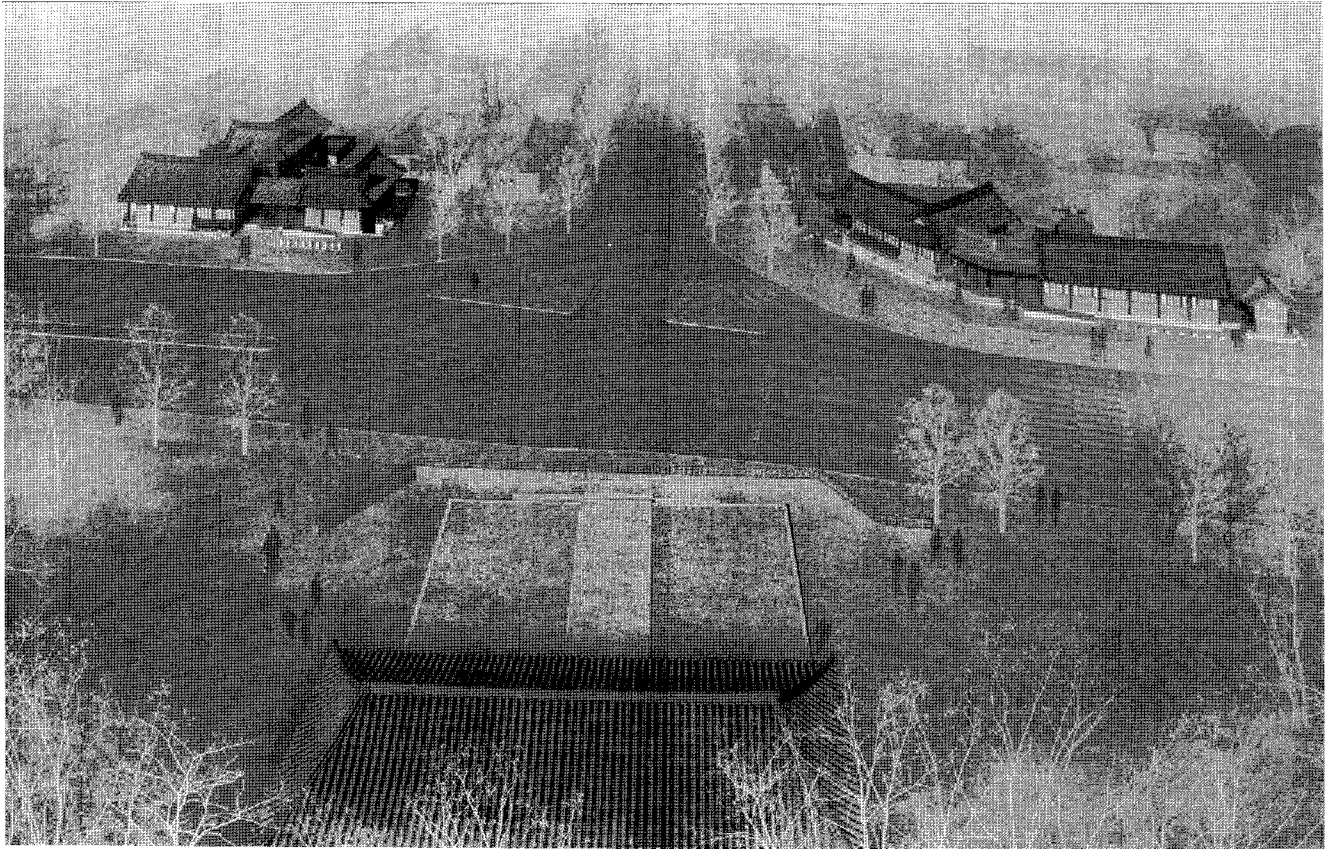


공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



돈화문 국악예술당





서울특별시 전통문화시설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 돈화문 국악예술당)

Traditional culture Center in Seoul (Digital Museum for a court life,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Center, DonHwamun)

가작_ 조영돈 ^{정회원}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김도경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5-9번지 외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돈화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철도
주요용도 문화시설 전시관
대지면적 908.2㎡
건축면적 249.16㎡
연면적 1,630.2㎡
건폐율 27.43%
용적율 27.43%
규모 지상 1층, 지하 2층

돈화문 국악예술당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2-2번지 외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돈화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문화시설 공연장
대지면적 958.6㎡
건축면적 277.42㎡
연면적 1,708.71㎡
건폐율 28.94%
용적율 28.81%
규모 지상 1층, 지하 3층

설계담당 유선건축 - 조영돈, 김율모, 최점순, 이숙경, 정원정, 공주희, 김연호 / 강원대- 김도경, 김이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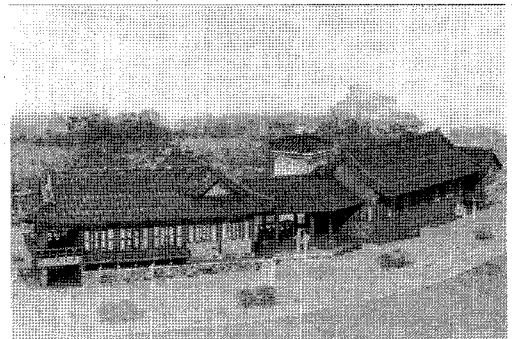
돌·어우름

돌은 어우름의 시작이다.
"하나의 어우름 타는 소통과 시간의 흔적" 이며-(궁중생활사 디지털 전시관)
"돌의 어우림 소리는 소통과 교감의 울림" 이다-(돈화문 국악예술당)
일상 속에서 소통과 교감의 흔적을 발견하고, 삶의 울림으로 세월이 흐른 흔적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소통의 울림, 왕과 나, 과거와 현재가 더해가는 흥겨운 관계를 만든다. 그래서 돌, 어우름은 서로 다른 관계의 어우림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창덕궁의 돈화문 앞, 이곳은 궁을 지원하는 시설로 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격은 높 이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접근하기 쉬운 열린공간으로서 계획 방향을 세웠다.

배치에 있어서는 한국 전통건축의 채 분 화의 특성을 공간의 기능으로 분리하였 다. 두 채사이에 회랑을 두어 채와 채를 연결하는 동선의 역할과 돈화문과의 연 계성을 고려한 주진입로의 역할을 하는 비움의 공간으로서, 내외부의 소통을 적 극적으로 활성화 시켰다.

마당에 있어서는 남향에 위치한 한국전 통 마당을 도입으로서 공간의 전통성 구 현과 공연 및 열린공간의 공공적 활용 기 능을 줌으로서 이용객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아늑한 마당을 형성하였다. 건축의 입면요소로는 조선시대 우리나 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된 의 공형식을 적용하고 엘리베이터와 측벽 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보여지는 꽃 담을 계획하여 궁에 대한 격을 갖추는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또 하나의 건축 특징으로 디지털 전시관 의 다실은 울곡로와 돈화문로와 만나는 가각부로 랜드마크적인 경관계획을 위 해 레벨차를 이용한 누각을 배치하여 정 자목과 돌의자등을 활용한 휴게공간을 구성하였다. ■



궁중생활사 디지털전시관

돈화문 국악예술당

